

푸른방송 '지역사랑파트너' 소상공인 지원 강화

지사파 협약 완료 업체 대상 20초 분량 광고 제작

푸른방송이 '지역사랑파트너(지사파)' 사업의 일환으로 참여 소상공인을 위한 광고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지난 16일(수)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다.

푸른방송은 지사파 협약이 완료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20초 분량의 광고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협약서 스캔본, 사진 및 동영상, 사업자등록증, 고객혜택 내용 등 광고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 중이며, 각 업체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맞춤형 광고가 제작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의 요청에 따라 제작된 광고는 매주 발행되는 푸른신문에도 박스광고 형태로 게재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참여 업체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현수 푸른방송 대표는 "이번 광고 제작 및 게재를 통해 지역사랑파트너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



인들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푸른방송은 이번 광고 제작이 원활히 진

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상득 객원기자

달서구 '별빛천체과학관' 건립 추진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지난 22일(화) 국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교육감 역시 공립과학관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됐다.

대구의 국·공·사립 과학문화 시설들이 대부분 동부권에 집중 위치해, 과학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중서부권 학생들을 위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교육과학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 이에, 달서구는 달서별빛캠프에 사업비 199억 원을 투자해 전시실, 천체투영관, 천체관측실, 교육실 등 연면적 2,542㎡ 규모의 천체과학관을 2025년 6월 착공해 2026년 12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달서구는 그동안 과학관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권영진 국회의원이 지난 7월에 대표 발의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달서 별빛천체과학관 건립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번 법률 개정은 교육감도 공립과학관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달서구는 별빛천체과학관 전시콘텐츠 용역 업체를 이달에 선정했으며, 학교 교과과정을 반영한 차별화된 전시콘텐츠 구성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가슴에 천체와 우주에 대한 무한한 상상과 꿈을 심어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달서 별빛천체과학관 위치도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우주 산업시대가 열리고 정부 7대 우주강국 비전속에서도 대구 중·남·서 달서구권에는 과학관이 없는데, 이번 공립과

학관 건립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별빛천체과학관 건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서구청>

푸른방송과 푸른신문이 지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달서구 달성군의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 기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기획 기사를 통해 가계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민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필요하신 분은 푸른방송 551-2000, 푸른신문 572-6000로 연락 주십시오.

- * 1.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푸른신문에 제보해 주신 기사가 게재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 2. 사랑하는 사람, 보고싶은 사람, 고마운 분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세요.
사연과 관련 사진 동영상 등을 푸른방송 제작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gcsup@gcs.co.kr)

푸른방송 홈페이지 QR코드

푸른신문 홈페이지 QR코드

